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2021□ □□□□□□□□ 12□ □□ □□□□ □□ □□□.

□□□ YANG Jiw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Q. □□□□ □□ □□ □ □□□□□ □□ □□□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ellow Blues>(2021) 0000

00000 2021, 0000000 000, 00, 2021(00: 00000000 00, 000 00)

Q. 000 0000 000 00 000 0000 00 000 00 00 00.

A. 00000 00 000 0000000 00 00 00 00(<Yellow Blues> 000)0 0000000 00. 20200000 000 000190 00 000 000 000000 '00 000 000 0 00 00'0 0000 00 000 000 000000, 000 0000000 000 000 00 0 000 000. 000000 0000 0000 0000 0000000 0000 00 000 000000 00 000 000 000 00 00 00 000 00 0 00. 000 000 000 000 000 0000 00(self-consciousness)0 000 00 0, 00 000 000 0000 00 00 000 000 00 000 00 0 00 000 00000 00000, 000 000 000 00000 00 000000 0000 00 000 00 0 0 000 00000. 00 00 000 00 000 000000 0 0000 00 00 00 0 000000, 000 000 000 00000 00 000 000000 00000 0000 0000 0000000 0000.

00000: jiyoungyoon.com

0000 LIM Hyungsup



woodenman, 2017, 70 x 58cm, 2017
Monologues, CICA Museum, 2020

Q. 이 작품은 어떤 매체로 제작되었으며,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A. 이 작품은 <Woodenman for 4CH Audio-visual>(2017)의 한 부분으로, 4채널 오디오-비주얼 매체로 제작되었습니다. 작품은 디지털 공간에서 움직이는 수직의 기둥들이 마치 숲을 이루는 듯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각 기둥에는 다양한 숫자와 기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또한 'Monologues' 시리즈의 일부로, CICA Museum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각각의 기둥이 마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전체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통과 고독의 문제를 다룹니다. 작품은 디지털 시대의 인간 존재와 기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관객에게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험을 재고하도록 유도합니다.

* 이 작품은 디지털 아트 전시회 'Digital Art 2020'에 출품되었습니다.